

신안군 작은 섬 주민 복지·주거 환경 행진다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소기점도·문병도 등 4곳 선정
 식수 개선·수질조사·환경 정화·주택 개량 지원 나서

신안군이 10명 이하 주민들이 모여사는 ‘작은 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관광과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서 개발 사업에서 소외된 10명 이하 주민들이 사는 소규모 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안군은 올 하반기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펼칠 10인 미만 지역민들이 거주하는 지역 4개 섬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 방향·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은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도, 10명 이하라는 경제 논리로 인해 도서개발사업비 지원에서도 제외되면서 날로 열악해지고 ‘무인도화’되는 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2곳에서 추진된 이후 올해 4개 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사업 대상 섬은 신안군 내 ▲중도면 소기점도(7가구 13명) ▲하의면 개도(6가구 11명) ▲하의면 문병도(11가구 15명) ▲하의면 장재도(5가구 12명) 등 4곳이다. 하의면 개도의 경우 전기도 자체 발전으로

공급하고 배도 다니지 않는 섬이다. 전남도 등은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풍광과 생태·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섬 등을 대상으로 ‘가고 싶은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거주민들이 적은 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신안군 설명이다. 또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섬 지역 예산 투자를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보니, 똑같은 섬인데도 거주민 수에 따라 복지 및 주거 환경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께 올해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 지역 내 10인 미만 13개 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주

민불편사항을 수렴한 뒤 하반기부터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작은 섬 봉사단’을 꾸려 말뚝을 해 주는가 하면, 식수 개선·수질조사, 주변 환경 정화활동, 주택 개량 및 도배·장판·지방 등 보수활동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지원 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은 국가 중요한 자산임에도 그동안 예산 투자 등에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측면이 존재하다보니 10인 미만 섬 주민들의 삶이 날로 열악해졌다”면서 “이들 주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쳐 소외받지 않도록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세계적 멸종위기종 ‘빨제비갈매기’ 영광 무인도서 2년 연속 번식 확인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빨제비갈매기’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에 성공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빨제비갈매기 어미새 6마리가 영광군 무인도서에서 번식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이 중 1쌍이 번식에 성공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빨제비갈매기는 지난해 4월 국립생태원의 ‘2016년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어미새 5마리 중 1쌍이 번식에 성공, 어린새 1마리를 키우 6월 번식지를 떠나는 과정을 확인한 바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현재 빨제비갈매기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영광 주변 무인도 내 새로운 서식지를 발굴하고 빨제비갈매기의 번식생태와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빨제비갈매기의 서식이 확인된 무인도에 3D 지상라이더·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해 빨제비갈매기의 생태를 관찰해왔다.

무인카메라 등을 통한 관측 결과, 빨제비갈매기 어미새 6마리가 지난해 보다 2주 늦은 5월 초 동지를 찾아왔다. 이들 빨제비갈매기는 지난해 발견된 동지에서 240m 떨어진 곳에 도착했다고 국립생태원은 전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빨제비갈매기 2쌍이 알을 낳았으나 1쌍은 알을 품는 과정에서 부화에 실패했고 다른 1쌍은 번식에 성공해 어린새 1마리를 키운 뒤 7월 중순 번식지를 떠났다.

빨제비갈매기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발간하는 적색목록(Red List)에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한 위급종으로 분류돼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사라져 가는 해조류
 뜬부기 양식 나선다

당뇨·고지혈증 등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뜬부기 양식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전남 연안에서 사라져가는 해조류인 뜬부기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식하기 위해 인공종자 생산을 통한 자원 조성 등 연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연안 환경 변화와 무분별한 채집, 매립 등으로 점차 분포 면적이 줄면서 보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말린 것을 기준으로 1kg에 10만~12만원에 거래되는 고소득 품종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다년간 뜬부기 생리·생태 등 양식 기초 연구자료를 확보했으며, 자연에서 성숙한 뜬부기 모종을 채집해 시험양식을 한 결과 새로운 ‘해조류 채묘장치’를 특허등록했다. 또 종자의 부작기질 규명 및 시험양식을 통해 채묘기술을 정립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지난해 무안연꽃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연꽃의 향기를 느끼며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무안군 제공>

‘여름 열음 나라’... 무안 연꽃축제 시원하게 즐기세요

12~15일 회산백련지
 i-쿨존·이글루·바닥분수...
 관광객 무더위 식히기 주력

무안의 대표 축제인 ‘제 21회 무안 연꽃축제’가 동양 최대 백련지인 회산백련지에서 오는 12일 막이 오른다.

올해 연꽃축제는 15일까지 나흘간 ‘사랑·소망, 그리고 인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무안군은 개최 시기를 감안, 무더위에도 돌러보고 즐길 재미가 쏠쏠한 축제로 만드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무안군은 개막행사인 ‘연지방 소망등달기’, ‘백련 가래떡 나눔 잔치’를 시작으로 77개 프로그램을 마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오는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여름 휴식기에 열리는 축제라는

점을 고려한 무더위 탈출 행사를 계획하는 데 공을 들였다.

‘i-쿨존’이 대표적이다. i-쿨존은 공공 열린 열음을 주제로 겨울 포토존, 이글루, 연 열음 조각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으로 한여름 열음 나라를 기획, 관광객들의 무더위를 식히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행사장 곳곳에 그늘 터널을 마련해 무더운 시각,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방안도 세워놓았다.

대형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한편, 능소화 터널을 비롯, 우산길과 안개분수거리 등을 조성하고 무더위를 날려버릴 물총페스티벌도 펼칠 계획이다.

더위가 누그러지는 야간 관광객 잡기에 나선다. 느티나무 거리에 은하수 조명등을 설치하고 회산백련지 밤하늘에 소망풍등을 날리는 행사 등으로 관광객들을 야간에도 행사장에 머무르게 한다는 전략이다.

편안일수록 행사에서 탈피한 점도 눈길을 끈다.

무안군은 올해 ‘연지방 LED 소망등 달기’ 행사를 새롭게 마련한다. 또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 알리는 데 주목, ‘100m 연 가래떡 나눔 잔치’, ‘양파 제기차기’ 대회도 열고 연꽃과 시가 만나는 시화전시 등도 마련해놓았다.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들 사이에 꾸준하게 인기를 모았던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유리온실 덕터피쉬 체험, 연꽃 워터피아 놀이터 등도 예년보다 업그레이드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먹거리를 마련해 놓았다”면서 “행사장 내 가득한 백련 향기를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임동원기자 jdh@

영광군 금정·봉대·봉덕산 등산로 정비

영광군이 등산로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2017 등산로 정비사업’에 따라 흥농 금정산, 봉대산, 연산 봉덕산, 백수 하사리 송산, 구수산 일대의 등산로 정비 사업을 진행중이다.

군은 앞서 상반기에도 불갑산, 태청산, 장안산 일대에 망원경과 등산종합안내도, 관광도, 정자 등을 설치하는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펼쳐왔다.

불갑산 연실봉(사진)에 설치된 망원경의 경우 칠산바다, 백수해상풍력단지, 영광읍내 경관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지역을 찾는 등산·관광객들의 호응이 컸다.

군은 이에따라 물무정(물무산)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망원경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점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기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국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점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점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점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종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